

한아름의 선물

이우향 자매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달리다시피 도착한 버스 정류장, 시계를 보니 늦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도한다.

아침 일찍부터 어찌나 서늘했던지 아침의 냉한 기운에도 후끈 땀이 배인다.

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몸을 세우고 잠시 후면 만날 자매님들을 생각한다. 누구, 누구, 누구..... 마음으로 꼽으며 그 자매님들과 오늘도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따뜻해진다.

성린 재활원!

십정동 어느 한적한 곳에 위치한 그곳.

작년 4월부터 우리 인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귀한 인연을 맺어 온 곳이다.

그곳에는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이 50여명 생활하고 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온몸이 뒤틀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 사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처음 보기에는 섬뜩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고통을 인내하고 물리 치료의 피나는 어려움들을 반복하는 가운데 육체와 정신의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재활되어 단순 작업일 지라도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고 나

아가서는 직업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의 장이다.

처음에는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우울함과 쾌적하지 않았던 느낌들이 우리에게 심적인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한 번 두 번 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불편한 몸으로는 세밀히 신경쓰기가 어려워 구석 구석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자매님들이 하는 일이었다.

숙사와 식당 청소, 이불 빨래, 침구 손질과 주변 정리 정돈이다. 초기에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불결하였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돈이 되었고 또 자매님들도 일을 능률적인 방법으로 능숙하게 할 정도로 익숙하게 되었다.

더구나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이불 빨래 같은 것은 선교사님들의 무한한(?) 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제는 그곳에 가면 아는 얼굴들이 많아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 주는데 그들 중에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기다린다고 친근감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다.

비록 한달에 한 번이지만, 그 작은 도움이나마 크게 생각하며 기다려 주고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날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주고 너무도 큰 것을 갖고 온다.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진정으로 의미있는 기쁨의 선물을 가슴 가득 받았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온다.

연년생인 아이 셋을 업고 안고 데리고 오는 자매님, 독신 자매이면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자매님, 몸이 불편해도, 아기를 가져 무거운 몸으로도 도움을 주고자 오시는 자매님들.

그 자매님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주었을 때 두배가 되어오는 행복감을...

진정 그 자매님들은 아름답다. 그 선하고 의로운 영으로 인하여 봉사를 했노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칫 교만이라. 그 재활원에 계신 분들이 못하는 그 몫을 대신하여 우리가 조금이나마 나누었을 뿐이다.

이웃에게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나의 시간과 정성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발전함을 나는 믿는다.

오늘도 바로 재활원의 그 분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다.

나는 이 아침 바쁘지만 좋은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돌아오는 길에는 아름다운 자매님들과 함께 한아름의 선물을 안고 올 것이다.

버스를 기다리는 내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다. □

안양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솜씨 자랑 전시회

'93년 11월 6일 토요일, 안양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제1회 상호부조회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군포, 과천, 시흥, 독산, 안양, 안산 등 여섯 개 와드의 자매들은 이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2~3개월 전부터 함께 모여서 공동 작품을 만들거나 개인적으로 작품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까지 열렸던 바자회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지시 아래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으며 대신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작품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첫번째 발표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님의 인도 아래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 개회를 위한 다과 모임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와서 간단한 다과회를 나누고 자매들의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하루가 되었다.

유화, 흙패션, 지점토, 데생, 조각, 한복, 꽃꽂이, 서예, 사진, 나염, 공예 등 여러 가지 독창적이고 입체적인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 놀라움과 함께 우리의 재능들을 적극적으로 키워 가야 한다는 소망을 가진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특별히 안양, 군포 와드에서 공동 작품으로 마련한 폐식용유를 활용한 무공해 비누는 시대적으로 환경 문제의 심



각함과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으로써 자매들의 사랑을 한껏 받았다. 100여년 전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전시회장은 자매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었으며, 순수한 희생과 봉사로 이루어진 결실의 장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 대회를 잘 준비하고 감상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 시간, 건강 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매들의 조그만 힘으로도 위대하고 훌륭한 작품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되었으며 아쉬운 마음으로 내년을 기약하였다. □

(기사 제공: 김미진 자매)

강릉 지방부 대회

후반기 강릉 지방부 대회가 지난 12월 12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한복음 5:8)라는 주제로 개최되

었다.

서울 선교부의 니콜스 선교 부장의 감리로 열린 이 대회는 115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11일 오후에 있었던 지부장단 및 장로 정원회 훈련 모임에서는 "지도자들이 회원의 영적인 발전에 중점을 둘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12일 일요 총회에서는 김주범 형제와 오용근 형제 그리고 현임배 지방부장의 말씀이 있었으며, 니콜스 자매는 교회 개척 시대에 관해 이야기하며 강릉 지방부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니콜스 서울 선교부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이번 대회는 남은 한해를 되돌아보며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겠다고 결의하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모임이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유남진 형제(삼척)가 장로로 지지받았다. □

새로운 출판물 소개

1. 가족 지도서(Family Guidebook)

Item Number : 31180 320

가격 : 무료

내용 : 가족의 목적 및 가장이며 축복사인 아버지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설명되어 있다.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지침과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나와 있다. 총 19쪽

2. 신권 지도자 지도서(Priesthood Leader's Guidebook)

Item Number : 31178 320

가격 : 무료

내용 : 교회의 각 단위 조직에 대한 설명과 신권 지도자의 임무 및 신권 성임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다. 재정, 건물 관리, 보고서 제출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다. 총 23쪽

3. 성전 및 가족 역사 지도자 지침서(Temple and Family History Leadership Handbook)

Item Number : 34549 320

가격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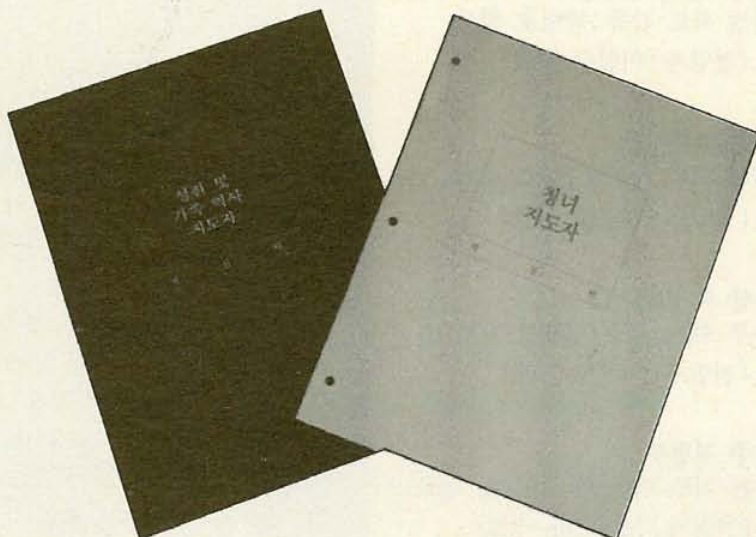
내용 : 지도자들이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한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52쪽

4. 청년 지도자 지침서(Young Women Leadership Handbook)

Item Number : 33750 320

가격 : 무료

내용 : 청년 지도자들이 자신의 부름에 따른 책임을 잘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 프로그램, 조직, 청소년 지도력 공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쪽



5. 아론 신권 1(Aaronic Priesthood Manual 1)

Item Number : 34820 320

가격 : 3,000원

내용 : 청년들이 복음에 관해 배우고 아론 신권 모임이 즐겁고 의미있는 모임이 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본 교재를 사용하여 제사, 교사, 집사, 정원회를 개별적으로 가르치거나 세 정원회를 함께 가르칠 수도 있다. 교사용. 총 20쪽



6. 청년 1(Young Women Manual 1)

Item Number : 34823 320

가격 : 3,000원

내용 : 청년들이 복음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 적용하도록 원리를 반복해서 상세히 연구하며 학습하도록 꾸며졌으며 12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교사용. 총 219쪽

역원 변경

- 서울 서 스테이크
사당 워드 감독 : 박병호 형제
(전임자 : 이인수 형제)
- 수원 스테이크
평택 지부 지부장 : 김오 형제
(전임자 : 한상일 형제)
- 부산 서 스테이크
충무 워드 감독 : 양태철 형제
(전임자 : 정안채 형제)
- 원주 지방부
제천 지부 지부장 : Colums 장로
(전임자 : Moulton 장로)
영월 지부 지부장 : Leary 장로
(전임자 : Bodily 장로)

원고 모집

성도의 벗 편집실에서는 지역 소식란에 실을 독자들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내용

- ① 새로운 회원의 개종이야기
- ② 복음의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며 겪은 어려움과 간증
- ③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에 참석하며 얻은 간증
- ④ 성전 의식을 받거나, 가족 역사를 기록하면서 얻은 간증
- ⑤ 스테이크 선교사나 복음 선교사로 준비하거나 봉사하며 겪은 경험
- ⑥ 가족 및 가정의 밤 소개
- ⑦ 물문경을 통해서 변화된 삶에

대한 간증

- ⑧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성공 사례
- ⑨ 훌륭하게 계획되고 진행된 모임

분량 : 200자 원고지 8~10매, 컴퓨터 출력의 경우 A4용지 1~1.5매
기재 사항 : 성명, 주소, 소속 워드/지부명, 전화 번호, 사진, 교회 부름
원고 마감 : 매월 1일
보낼 곳 :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우편 번호) 133-600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벗 편집실
전화) 02-232-1441
팩스) 02-235-3357

• 원고는 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보내실 수 있으며,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